

▣ 예비비사용 요구액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산출내역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4100	4100	4111	140	405	₩464,476	(01) 자산취득비 앰프의 14종 기 자재구입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99,106	
4100	4100	4111	250	401	₩362,870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04) 시설비 건축, 토목, 설비, 전기공사
4100	4100	4111	140	201	₩2,500	(01) 일반수용비 현판 입간판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IV. 期待效果

- 가. 관내소재 교육장 확보로 민방위대원의 고질적 민원해소
- 나. 근거리에 따라 교육 및 업무추진 용이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 이전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70
----------	----

제안년월일 : 1996. 3. 30.
제안자 : 시민보전위원장

마포구 상암동 1563번지에 소재한 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은 서울특별시와 대형생활폐기물과쇄시설 설치운영 및 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1994년 4월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가전제품등 모든 대형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이를 자원화하거나 적정처리하는 시설임. 그러나 사업개시 이후 반입된 대형생활폐기물중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말처리품에 대한 처리방법, 장소 및 절차 등의 대책이 전무한데다 주먹구구식의 산만한 야적과 폐기물 방치 등으로 각종 유해물질이 인근 주택가에 흘러들어가고, 폐기물 운반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공해로 인하여 동 시설은 마포구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주었음.

1994년 10월 29일 동 시설의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이후 관계기관에서는 메탄가스에 의한 발화위험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화

재예방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을뿐만 아니라 대형생활폐기물을 과다하게 반입하여 재활용후 발생된 폐기물인 우레탄, 쇼파, 침대매트리스 등을 처리하지 않고 1만 1천 여톤의 쓰레기를 야적하였는 바, 1996년 2월 13일 중전과 동일한 지점에서 또다시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은 서울특별시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음.

금번 3일간 계속된 화재로 인하여 상암동, 성산동 및 망원동 일대는 매연과 악취, 유독성가스로 뒤덮였고, 인근주민들은 두통, 눈통증, 기관지 등의 이상으로 병·의원을 찾는 등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주민건강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곳 주민들은 지난 20여년간 난지도 쓰레기 매립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으며, 더욱이 최근 이러한 유해성 폐기물의 반입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마포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1.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즉각 난지도에서 철수하고 대형폐기물처리공장을 즉각 이전하라.
2. 난지도매립지 피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즉각 보상하고, 현재 건설중인 파쇄처리시설도 즉각 중단하라.
3. 야적된 대형생활쓰레기를 즉각 처리하고 계속 반입되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일체 중단하라.